

SK에너지, 중질유분해 투자 연기

1조5000억원 투자완료 5년 뒤로 ... 시기 조정일 뿐 취소는 부인

SK에너지가 인천공장에서 추진해온 1조5000억원의 수소첨가 중질유분해공정(HCC: Hydro Cracking Center) 설비투자 완료시점을 2016년 6월로 5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HCC는 저부가가치 유종인 벙커C유를 수소 첨가공정을 통해 등유나 경유 같은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으로 바꾸는 고도화 설비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석유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유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것이지 투자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천공장의 원유정제·화학제품 생산설비 등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2008년 4월 HCC 부문에서 1조5200억원의 신규투자를 결정한 후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공장에서 부지를 고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11>